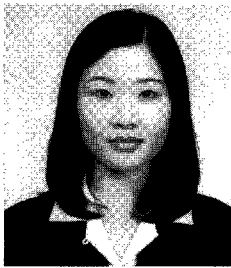


메리알 칼럼



소 현 희
메리알코리아 수의사

현 양계 산업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는 역시 생산성 저하 부분이다. 대부분의 양계인들이 애정을 가지고 닭을 사양하고 있지만, 양계의 주 목적은 사실상 경제성 획득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본방침은 적절한

투자를 통하여 최고의 수익을 얻는 것이며, 계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길이 좋은 경제성 획득이라는 사실도 누구나 알고 있다.

계군의 생산성 향상에는 여러 인자(factor)들이 영향을 주며,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 사양관리, 질병관리 등이 모두 이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들이다.

이들 중에서 이 자리를 통해 본인이 언급하고자 하는 인자는 질병관리 부분이다. 만약, 계군에 감보로병, 뉴캐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콕시듐증, 살모넬라균증, 대장균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곧 생산성 저하를 유발한다.

즉, 질병이 발병하면, 육계에서는 육성을 저하, 폐사율 증가, 사료효율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것이며, 산란계에서도 산란율 저하, 파란율 증가, 폐사율 증가 등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질병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지만, 실제 필드에서 많이 인식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면역기관의 보호이다. 면역기관이 손상되면 면역역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대략적으로, 육계에서는 2주령까지, 산란계에서는 3주령까지 주요 면역기관인 F낭이 발육한다.

특히 이러한 면역기관 발육시기인, 어린 일령에 면역기관이 손상된다면, 닭이 살아가는 기간동안에 면역억제성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병인체들에 대한 항병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닭에서, 특히 육계에서 가장 다발하는 질병 중에 하나는 간포막염 등의 대장균증이다.

일반적으로 대장균의 수치가 아주 높지 않는 한, 닭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들을 처리할 수 있으나, 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는 낮은 수치의 대장균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면역억제성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감보로병 바이러스와 대장균을 닭에 접종한 후, 그에 따른 병소와 폐사율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면역억제로 인한 대장균 증의 다발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다.(표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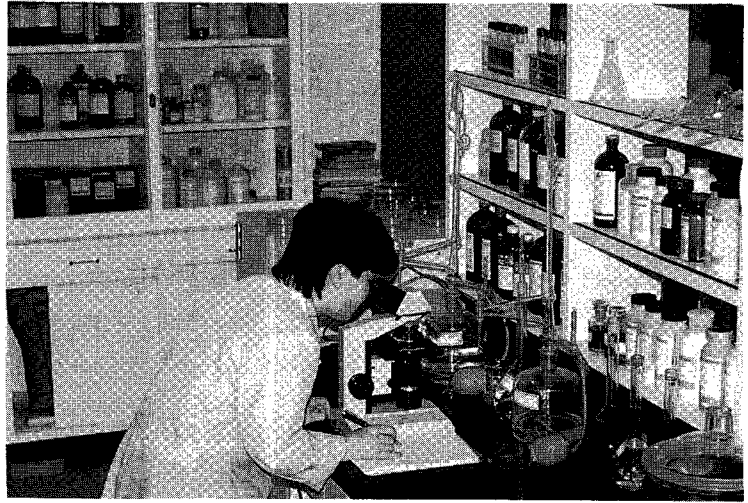


표1. 감보로병 바이러스와 대장균의 접종에 따른 닭의 폐사율과 병소

시험구	감보로병 바이러스 감염	대장균		폐사율		폐혈증		폐낭의 병소	
		병원성	용량 (CFV)	수수	%	수수	%	수수	%
1	있음	높음	1×10 ⁵	18/20	83	15/18	83	12/20	60
2	없음	높음	1×10 ⁵	12/19	63	12/19	63	16/20	80
3	있음	낮음	1×10 ⁹	10/20	50	8/20	40	11/20	55
4	있음	낮음	1×10 ⁹	2/20	10	2/20	10	2/20	10
5	있음	낮음	1×10 ⁸	5/20	25	4/20	20	7/20	35
6	없음	낮음	1×10 ⁸	0/20	0	0/20	0	0/20	0

또한, 필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육계에서 감보로병이 발생한 후에 대장균증이 다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처치로는 매번 항균제 투여, 소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옛 속담처럼,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투약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생산성은 저하된다.

닭의 주요 면역 기관인 F낭과 흉선 등이 감보로병 바이러스나 마렝 바이러스 같은 면역억제성 바이러스에 의해 조기에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며, 그 소요 비용도 더 저렴하다. 따라서, 국내 양계산업에서도 이러한 주요 면역억제성 질병에 대한 방안으로, 1일령에 마렝+감보로병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면역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가는 양계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였을 때, 옛 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현명한 판단하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면역기관 보호 프로그램은 국내 양계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양계**